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0년 6월 21일 (제1054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럼

기다리자

어떤 사람이 호수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수영선수로 이름난 사람이 이를 지켜보고만 있었다. 옆에 있던 노인이 안타까워 빨리 건져주라고 해도 그는 상황만 주시할 뿐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가라앉자 물에 뛰어 들어갔다. 나중에 그를 구해오고 사태가 수습되었을 때 노인이 물었다. 왜 그렇게 늦게 구했냐고. 그랬더니 수영선수 왈, “물에 빠진 자는 죽기 살기로 덤비기 때문에 그때 구하려 가면 저도 죽을 수 있어요. 힘이 빠졌을 때 가야 둘 다 삽니다.”라고 말했다.

맞다. 수위가 넘은 댐을 막으려고 하면 같이 쓸려 내려가고 만다.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뜨거운 그릇은 식은 다음에 만져야지 괜히 조금하듯 만졌다가는 뿔어뜨려 그릇도 깨지고 손도 뎀다.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과격하고 행동에 덤비면 안 된다. 괜히 물리고 다칠 뿐이다. 작심하고 덤비는 그들에게 무슨 약발이 먹히겠는가.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해 외부로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거기에 우리가 휘둘리면 되겠는가. 독 안에 든 쥐는 가만 두면 고사하게 되어 있다. 기다리는 게 지혜다. 북한이 우리나라의 진실을 처참히 짓밟고 있다.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정부의 마음을, 어떻게든 상생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게 화가 난다. 그런 자에게 꼭 맞는 말씀이 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마 7:6).

조급하지 말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홍해를 가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팡이만 내밀어도 홍해는 갈라진다. 강대국의 협박과 회유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대한민국의 통일도 자연스럽게 기회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경제적, 군사적 힘을 기르는 일이다. 내가 힘이 있어야 누구라도 포용하고, 내가 넘쳐야 누구와도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걱정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나라를 위해, 그리고 통치권자를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의 배려에 보답하는 길

배려는 상대에 대한 존중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목사님께서 풀어주신 배려의 한자를 이해하면 더욱 확실하게 이해될 것이다.

“배려(配慮)의 배(配)는 아내, 짝, 어미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려(慮)는 생각하고 걱정해주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배려한다는 것은 남편, 아내, 자식처럼 진실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배려를 하셨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엘리야, 엘리사 같은 특징인과 함께 하

를 죽기까지 고생하며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 능력을 받아 세상과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제 갈 길로 갑니다. 그러니 정욕대로 내버려두시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목사요, 장로요, 집사들이 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두려워하는 대상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년 365일 두려워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

고 했지만, 여전히 그분은 오시지 않고 우리는 기다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리 더디신 거냐? 이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3:8~9). 이러한 배려가 있었기에 오늘날 나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목



셨습니다. 성령이 특징인에게만 외주(外住)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온전한 희생을 통해 믿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주(內住)토록 하셨습니다.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우리를 배려하신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배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적극 부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14:12). 내가 한 일을 할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하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아버보다 더 큰 성공,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심정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피

쏟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심판하여 천국으로, 지옥으로 데려가실 하나님보다 육체에 위협을 가하는 세상의 권력자들, 재력 있고, 지력 있는 자들, 곧 악한 마귀의 하수들에 종노릇하며 두려워 떨며 어찌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첫사랑을 되찾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멸망으로 미끄러져가는 영혼들을 구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배려, 그 은혜에 진실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이시대 목사님이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배려에 대해 설명하신 내용도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2천 년이 지났고, 그 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았으며 예수님이 오신다

적이지 않다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인내하심, 배려가 없었다면 우리는 회개할 기회조차 없이 지옥으로 떨어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언정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속에 있었고, 그곳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세상을 향해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배려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우리를 배려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진정 부응하는 길이다.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4:8~17)

상식이란 틀을 깨야 기적을 맛본다

상식(常識)이란 사람으로 가져야 할 일반적인 지식, 보편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상식이 사람과의 관계에 필요하다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규제가 성장의 저해요소이듯, 상식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데 저해요소입니다.

상식선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어떻게 홍해가 지팡이를 내민다고 갈라집니까? 어떻게 태양이 멈추고, 어떻게 해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고, 어떻게 모세가 손을 든다고 전쟁이 이기고, 어떻게 여리고가 소리를 지른다고 무너지고,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고, 어떻게 귀머거리가 듣게 됩니까?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난 시체가 살아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나 상식을 넘어선 믿음이 있는 자에게서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니 말이 많은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정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14:12)고도 하셨습니다. “이게 뭘 소리야?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 이 말은 안 믿는 자들의 반응이 아니라 믿는 자들 대다수의 반응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다들 ‘건방지다, 교만하다,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왜 못합니까? 예수님이 받은 성령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는데 왜 못합니까? 못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는 지리적인 여건이 불충분했지만, 지금은 비행기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위성도 쏘아 방송도 하는데 당연히 더 큰 일을 해야지요. 그 생각의 틀을 깨지 않으면 절대 기적을 맛볼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인생의 마스터키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쥐꼬리만한 지식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상식선에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성경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책입니다. 다 모순이고, 다 거짓말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가 된다고 하였고, 하늘의 뜻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창 15:5).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되어 가는 자신을 봐도, 쭈글쭈글 늙은 아내를 봐도 생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죽하면 여호와와 사자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을 하자 사자가 속으로 웃었겠습니까.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오”(창18:12). 다들 사자가 잘못된 거라고 말하지만, 경수가 끝난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아브라함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고, 첩 하갈에게서 자식을 본 것도 사람의 이치에서는 옳은 판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해와 상식을 넘어서



총회장 이초석 목사

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창 21:5).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그러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하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눅1:34)라고 말합니다. 상식을 말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의 틀을 깨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마1:18). 또한 예수님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누구 관대 사흘 만에 짓겠느냐’며 예수를 잡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했을 뿐더러,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분명히 그들과 동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상식적으로 합당한 말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파악하지 못한 것

이 있으니, 그것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눅18:27)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문물의 발달도 상식을 깨고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펼친 자들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상상한다는 것은 사람의 이치나 상식의 틀을 깨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대개 ‘미쳤군. 돌았군.’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날지 못한다’는 상식의 틀을 깬 덕분에 비행기가 발명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기이한 행동과 엉뚱한 생각의 소유자였던 에디슨이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두바이는 섬씨 40도가 넘는 열사의 나라이지만 시간에 맞춰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와 도시가 녹지화 되었고, 실내스키장, 골프장도 있고, 거대한 빌딩들로 가득 찬 기적의 나라, 세계 금융과 무역의 허브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상식을 깨고 무한한 상상력을 펼친 두바이의 왕 셰이크 모하메드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럼요. 한 시대의 맥을 그은 사람들도 두는 틀에 박힌 사고를 깨고 도전한 사람들입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는 성령의 역사가,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는 상식을 벗어난 미련한 일이고, 미친 것으로 보이나 우리에게 상식선을 넘어계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고전1:18). 그런 자에게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은 기업이 살아나고, 죽을병에서 나음을 얻고, 천한 자가 귀한 자가 되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그 샘플 아닙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을 바라는 것, 상식을 벗어난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2대째 소경인 바디매오가 눈을 뜬 것, 많은 의사들이 못 고친다는 12년 된 혈루증을 고친 것,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 문둥병이 나은 것, 다 믿음에서 발로된 것이고, 우리의 상식을 떠난 일들입니다.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라”(고전 2:13~14).

이론과 논리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상식의 잣대로 하나님을 재면 기적을 맛볼 수 없습니다. 꿈도 팔자라는 잣대로 재면 평생 범인(凡人)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상상력이란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보세요. 누가 ‘넌 안 돼.’, ‘네 팔자에 뭘 해?’라고 해도 귀는 막고 날아보세요. 사과 속의 사과 씨는 헤아릴 수 있지만 사과 씨 속의 사과는 헤아릴 수 없듯, 당신의 상상력은 엄청난 것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사와 이적을 맛보고 싶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싶습니까? 상식의 틀을 깨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술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고전3:18~19). 첫사랑을 잃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땅아래를 정복하고 다스리십시오. 상식들을 깨는 길은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할렐루야!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 아름다운 인생 ::

기업의 이익성장

일반적으로 기업이 존재하는 기본적인 한 가지 이유는 이윤 추구입니다. 이익은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돈인데, 모든 기업의 이익은 사주들에게 분배되며, 또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도 배당의 형태로 배분됩니다.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합니다. 훌륭한 경영진과 이익을 내는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보상받습니다. 기업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도 오르기 때문이지요. 주가 상승은 투자자뿐만 아니라 주식을 보유한 그 기업의 종업원과 임원들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경영이 부실한 기업의 경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수익성이 낮은 기업보다 더 많은 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어서, 여유자금으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성장과 확장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익이 적은 기업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쇠퇴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 기업이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투자자나 주주에게 있어 성장은 기업의 크기가 아니라 수익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상장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삼성전자의 이익이 증가하기를 바라고, 늘어난 이익이 주가 상승이라는 형태로 보상해주기를 원합니다. 따라

서 성공적인 주식투자의 출발점은 앞으로 수년 동안 이익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찾는 것입니다. 만일 현대차가 올해 주당 1만 원의 이익을 창출한다면 10만 원짜리 현대차 주식을 살 때 이익의 10배를 주고 사는 셈이 됩니다. 현대차의 주가수익비율은 10이 되고, 이는 현재 시장상황으로 볼 때 싼 주식입니다. 반대로 10만 원에 달하는 현대차 주식의 주당 이익이 1000원이라면 이익의 100배를 주고 주식을 사는 셈이지요. 이때 주가수익비율은 100이고, 이는 너무 비싼 값을 주고 주식을 사는 것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수익이 빠르게 성장할 경우 더 많은 투자자가 이익 성장에 대해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경영을 하는 신생기업의 주가수익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반면 안정기에 들어선 기업은 꾸준히 성장하는 대신 급격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가가 수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수익성이 높고 성장하는 기업에 자금이 몰리는 세상의 이치도 결국은 열매 없이 땅만 버리는 무화과나무를 찍어내고 포도나무를 심어 이익을 남기는 예수님의 경제학을 철저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어나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눅13:8~9).

이미경 권사
lmkwdf@hotmail.com

:: 성경예세이 ::

편안을 버리게

여보게!
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느라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네.

이런 상황에 내가 염려하는 것이 있다네. 대다수의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있지만, 혹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편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일세. 한 번, 두 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익숙해지고, 편안해서 굳이 성전까지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이것이 단순한 노파심이기를 바라네.

상황에 따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야 있지. 그러나 가능한 상황이나 여건이라면 적어도 공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야 옳지. 현재 상황에서는 노약자나 어린 아이를 둔 부모를 제외하고는 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지. 사실 자네도 집에서 예배드려봐서 알겠지만, 인터넷 예배는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지. 전화가 울리면 전화도 받아야 하고, 누가 찾아오면 응대도 해야 하고, 화장실도 가고, 물이라도 마시게 되고, 아무래도 자세도 흐트러지게 되지.

여보게!
자고로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이라네. 개구리를 바로 뜨거운 물에 넣으면 ‘아 뜨거!’ 라고 튀어나오지만,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불을 때면 ‘아~ 따뜻하다’ 하면서 배를 뒤집고 누워있다 살아죽게 되는 거라네. 편안하다, 안일하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살전5:3).

신앙도, 삶에도 편안함을 버려야 하네. 그러지 않으면 느낌보 거북이와의 게임에서 지는 토끼 신세가 되고, 마태복음 24장에서처럼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다른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나 나는 버림을 받는 수가 있고, 마태복음 25장에서처럼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고 어둠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될 수 있다네. 편안함을 버려야 평안함이 오고, 안일함을 버려야 안위가 온다네. 이번 주부터 주일성수 잊지 말게.

朋友

신앙의 품격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교회가 나오니다. 동서(東西)를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의 수도로 로마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그중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별된 삶을 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Christian)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라 조롱하는 말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크리스천으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받은 교육도 있겠지만 가르치는 자가 먼저 본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부 교사로 있다 보니 학생들이 좋은 것만 따

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모습까지도 말과 행동을 따라 하는 모습을 보고 적잖이 충격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총회장 목사님께서 ‘언어는 믿음과 인격의 척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전해주시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살아보자 노력하지만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버린 것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언어와 행동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그의 인격이 겹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바로 잡으려 애씁니다.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어제보다 오늘 더 조금씩 나은 모습으로 바뀌어나간다면 언젠가 현재의 내 모습과 다른 좀 더 품격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은성 es2563@naver.com



:: 소망의 언덕 ::

목적이 이끄는 삶

한강을 따라 하이킹을 즐기던 나를 멈추게 한 전경이 있습니다. 바로 2020년 12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월드컵대교의 공사현장으로, 이제 막바지 상판 작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현장에는 많은 인원이 있지 않았습디다. 자재를 나르는 바지선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10명 정도의 인부만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대형공사는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줄 알았기에 정말 많지 않은 현장 인원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기에 확실한 것은 그들 모두는 전문가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전문 장비를 다루고 통신 장비로 서로 연락을 취하며 일하는 모습이 멋져 보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일당 백의 역할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써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뤄지는 현장이었습디다.

사실 월드컵대교는 2010년 4월에 착공을 시작해서 2015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세 차례나 완공 일자가 연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0년이 넘도록 공사에 매진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여러 가지 난관 앞에도 혼

들리지 않은 것은 월드컵대교가 완성된 이후의 모습을 바라다보았기 때문이며, 많은 시민들이 누리게 될 혜택과 기쁨을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꿈이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는다.’라고 목사님은 늘 설교하십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뜻대, 곧 목적이 있었기에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중에도 꿋꿋하게 진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사도 바울처럼 그날의 상을 위해 36년 동안 물 없는 사막, 눈 덮인 산야 같은 목회의 길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우리의 꿈도, 목적도 주춤거나 움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바라다보고, 그 목적을 향해 더딜지라도 진군하면 반드시 역경 중에도 꿈은 성취됩니다.

힘을 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이고, 지원군을 보내주실 것이고, 환경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합시다. 이현승 목사 coollee0817@naver.com

:: 에덴으로 귀환 ::

:: 귀를 기울이세요 ::

순종의 복

2015년 고려대학교에 향(香)과 관련된 전문적인 학과가 신설되었고, 1기생이라는 좋은 기회를 얻어 34살의 늦은 나이에 석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학업을 병행하며 어렵고 버거웠지만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과의 지도교수님은 박사 과정 지도 학생을 아무나 받아주지 않는 교수님으로 유명한데, 입학과 동시에 저를 눈여겨보셨던 터라 퇴임 전 마지막 지도 학생으로 받으시고 저를 겸임교수로 키우실 요량이셨습니다. 논문심사가 끝나고 박사과정을 밟기 위해 지도교수님과 면담을 했고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부모님과 남편에게 의논을 하려고 말씀드렸더니, 부모님께서 왜 그 어려운 공부를 또 하려고 하나며 야단이셨고, 남편은 10년 가까이 2세 계획을 미뤄 많이 속상한 심정이었던지 아무래도 총회장 목사님께 상담을 받아야 하겠다며 심통을 부렸습니다. 사실 저는 단 한 번도 총회장 목사님께 스스로 찾아가 상담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의 고민 상담을 하시느라 분명히 힘드실 텐데 거기에 제 일까지 더해서 부담 드리기가 싫고, 나머지 한 가지 이유는 목사님께 상담을 받고 나서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데, 혹시 목사님 말씀 그대로 따르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크고 작은 고민이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담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늘 응답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성령님께서 이미 마음에 정답을 주셨기 때문에 목사님을

찾아뵙지 않아도 대부분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일이 너무 큰 고민이었는지 목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보였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항상 아는 것이 힘이라고 배움을 강조하셨기에 분명히 제 의견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목사님께 직접 여쭙보라고 당당하게 큰소리를 쳤습니다.

늦은 저녁, 총회장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빗나간 응답이었습니다. “온유야, 너 교수가 되고 싶냐, 사업가가 되고 싶냐? 사업가가 되는 것이 네 꿈이라면 박사 과정을 밟는 게 맞겠냐, 아니면 지금 사업에 집중해서 성공하는 게 맞겠냐?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할 때야. 교수나 박사는 사업가로 진정 성공했을 때 명예교수나 명예박사로 얼마든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자녀의 축복 또한 시와 때가 중요하단 말이야. 더 늦기 전에 아이도 가져야 해. 박사보다, 성공보다 가정의 행복과 자녀의 축복이 가장 중요한 거야.”

저는 “아멘!” 하고 답한 후에, 전화를 끊고 평평 목 놓아 울었습니다. 박사과정 준비를 다 해놓고, 지도교수님과 모든 이야기가 다 된 상태에서 총회장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니 다 내려놓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 서러웠던 겁니다. 결국 저는 목사님의 말씀대로 박사를 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도교수님께서 호출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가을 학기마다 반복되는 전공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을 담당하셨던 전임 강사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셨다며, 제가 대신 강의를 맡을 의향

이 있느냐는 제안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석사 출신의 강사는 거의 채용하지도 않고, 석사학위를 가지고 강의를 하려면 담당 지도교수님께서 학과의 모든 후배 교수님들에게 직접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맡게 될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가을 학기부터 절대 불가능한 기회를 얻어 강사로 임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학기가 끝날 무렵, 그즈음 아이를 갖게 되면 그다음 가을 학기에 수업이 시작되기 전 출산하고 회복하면 모든 것이 딱 맞겠다 싶어 이사와 같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쁜 일상에 계속 뒤로 미루다가 두 달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한 지 벌써 8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단지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뿐인데 수고하지 않아도 대학 강이며, 2세의 축복이며, 제가 원하는 바와 모든 가족들의 원하는 대로 너무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기껏 상담을 다 받아 놓고 순종치 않아 멸망하는 성도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시며 상담을 받았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미련할까 생각하다가도 ‘나는 절대 상담 받지 말아야지.’ 꼭꼭 다짐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제시하시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멘 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15:22).

김은유 집사

진정한 아름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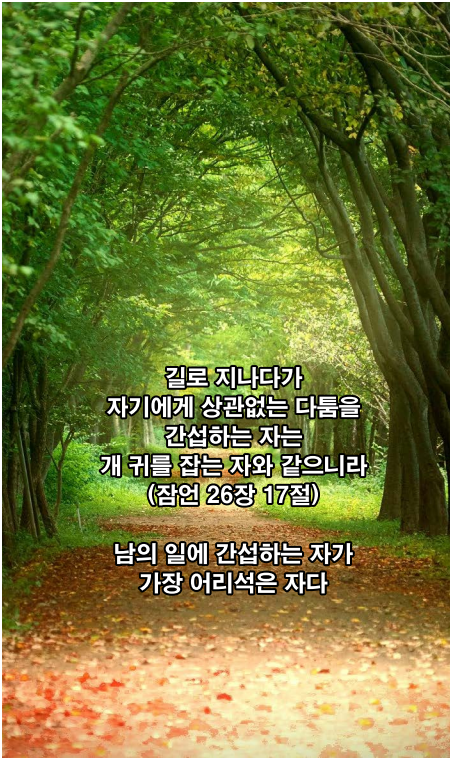
아름다운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맛있는 음식을 사준다는 친구의 권유로 예수중심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신나게 놀 수 있는 MT를 간다는 소식에 그 청년은 두 번째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자! 같이 기도를 하자! 같이 찬양을 하자’ 이렇게 세 번, 네 번 나오기를 반복하더니 그 청년은 이제 예수중심교회에 매주 나오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예배에 참석하는 횟수가 점점 많아질수록 청년은 금급한 게 더 많아졌습니다. “왜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울까? 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까?” 이에 청년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꼭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간을 내어 성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중을 못해 10분 기도하고 성전을 들락날락하기가 일쑤였지만 청년은 포기를 모르고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성전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에 우리말로 소곤소곤 기도를 하고 있었고, 작은 소리로 찬양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모습을 보자니 눈물이 울컥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 뜨거워 ‘곧 성령을 받겠구나’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사람이 보기에든 이렇게 아름다운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저 청년에게 꼭 성령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바로 저 모습이구나.’라는 깊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를, 기도를 멀리하지 않았나요? 우리 모두 이 청년처럼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순수성을 회복해봅시다. 할렐루야!

송현혜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암의 싹 ‘용종’ 제거로 예방 가능한 대장암

대장암은 위암, 간암, 폐암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중 하나다. 국가암정보센터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률은 2012년 인구 10만 명당 45명으로 전 세계에서 3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또한 해마다 5.2%씩 늘어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증가하고 있는 암이다. 대장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환경적인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85~90%에 달할 정도로 높다. 고기나 가공육 등 서구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뀌면서 식이섬유를 제대로 섭취하지 않아 증가 속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그 외 과도한 음주와 흡연 역시 대장암의 원인이며 유전적인 요인으로 대장암이 발병하는 것은 5~15% 수준이다. 다행히 대장암은 정기적인 대장내시경을 통해 충분히 예방

할 수 있다. 대장암은 대부분 용종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용종이라는 싹을 잘라 버리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 대장용종은 대장의 점막에 발생하는 일종의 혹이다. 대장용종은 대장용종의 90%를 차지하는 ‘선종성 용종’과 나머지를 차지하는 ‘비선종성 용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대장 점막에서 점액 분비를 담당하는 샘 조직 세포의 이형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선종성 용종은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며,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병변이다. 물론 모든 선종성 용종이 바로 암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대장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 암이 진행되면 혈변이나 흑색변, 변이 가늘어지거나 복통이 생기고 변비나 체중이 감소하기도 한다. 대장용종의 제거 방법으

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대장내시경하에서 시행되는 올가미를 이용한 용종절제술이다. 이 방법은 용종이 있는 점막하층에 지혈제와 염색약, 생리 식염수가 섞인 약제를 주입해 용종을 점막 위로 띄운 후 올가미를 걸고, 전기를 흘려보내 출혈 없이 안전하게 용종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응용하면 효과적으로 대다수의 용종을 절제할 수 있으며 초기 대장암 역시 제거할 수 있다. 서구적인 식습관, 날로 늘어나는 스트레스와 다양한 환경 변화, 유전적 영향으로 대장암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장암은 초기에만 발견되면 수술 없이 내시경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따라서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는 필수며, 평소에도 채소 위주의 웰빙 식단으로 건강을 지키자.

Dr. 조희경 집사